

# 2009 우수 여왕벌 보급 사업 결과 보고 실시

- 윤병수 교수 제4차 임원지회장 회의서 발표
- 너무 늦은 보급 시기 지적, 내년엔 개선키로

2009 우수 여왕벌 보급 사업 결과 보고가 지난 10월 9일 제4차 임원지회장 연석회의에서 발표됐다.

여왕벌 보급사업 총괄책임자인 윤병수 경기대학교 교수는 “우수여왕벌의 보급이 많이 늦어진 점에 대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깨달은 바가 있는 만큼 내년에는 불만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교수는 “여왕벌 수송과 관련해서는 고속버스를 이용한 우송 방법이 가장 안전했으며 개체 여왕벌 및 집단 여왕벌들에 대한 유전자 감식법의 연구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내년 초까지는 현장 적용을 위한 실험법이 정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급 여왕벌의 신뢰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단위 여론을 수렴하고 보급된 여왕벌 품종의 성적을 집계·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각종 기술적 문제에 있어서는 금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급일을 미리 통보하고 보급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고, 보급수량 증가에 신경을

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과보고에서 각 시도 지회장들은 월동시기의 늦은 보급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노영근 충남지회장은 “여왕벌이 생산되는 육종장을 둘러본 결과 육종장으로서의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육종장 선정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주장했다.

또한 정해석 강원지회장은 “연간 1억원의 사업비는 너무 적은 돈이다. 여왕벌 생산농가가 여왕벌 생산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사업예산을 늘리도록 정부에 건의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오만균 부회장은 “보급되는 여왕벌로 인한 질병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여왕벌 보급에서 벗어나 보급되는 여왕벌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도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병수 교수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에는 더욱 성공적인 여왕벌 보급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양봉**

# ‘양봉 국제 심포지엄’ 20~21일 성료

- 양봉인 700여명 참석으로 대성황  
- 박광태시장 및 해외 초청인사 발표로 내용 알차



어 오던 양봉인의 날 행사가 취소되면서 많은 양봉농가의 아쉬움을 샀으나 이번 국제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로 일부 아쉬움이 해소됐다.

일정이 촉박했음에도 각 지회, 분회별로 많은 참석을 이뤄 성황리에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의 참석과, 멀리 헝가리에서 오신 Karoly REDEI 교수님과 베트남에서 오신 Nguyen Thi Kim Cuc 연구원 및 국내 교수님과 박사님들의 발표로 더욱 알찬 내용의 심포지엄이었다는 평가다.

‘양봉산업발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이 성료했다.

한국양봉협회는 양봉학회가 주관하고 농림부, 농진청, 광주광역시가 후원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지난 10월 20~21일 양일간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개최했다.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예방차원에서 매년 시행되

더욱이 만찬때 열린 퓨전 국악단 공연으로 다소 경직된 심포지엄 분위기가 화기애애 해지며 참석한 양봉인들을 즐겁게 했다.

한편 협회와 학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내년 아시아 양봉대회의 학술행사를 더욱 알차고 성공적으로 개최할 뜻을 모았으며 적극 홍보키로 했다. **양봉**



# 경남 산청 양봉 현장 설명회 개최

- 지난 9월 12일 덕산문화의 집에서 열려
- 협회 임원을 비롯 군수, 국회의원 참석으로 활기
- 양봉농가 적극 참여로 강의 열기 후끈



양봉산업발전을 위한 현장 설명회가 지난 9월 12일(토) 경남 산청 덕산문화의 집에서 개최됐다.

경남지회 산청군 분회가 주최하고 한국양봉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의 후원으로 더욱 알찬 행사가 됐다는 평가다. 특히 배경수 양봉협회장과 조균환·오만균 부회장 등 협회 임원이 참석하여 양봉농가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양봉농가들을 격려했다.

이날 이재근 산청군수의 환영사로 시작한 현장설명회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 참가한 경남지역 양봉농가들로 그 열기가 뜨거웠다. 농진청에서 강사로 초청된 이광길 과장과 이만영 실장, 최용수·한상미 박사의 강의를 경청한 양

봉농가들은 질의를 통해 심도깊은 토론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또한 최고 강사로 이름난 김광호 콤비마케팅 원장의 특강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양봉농가들은 이러한 농가 교육이 자주 개최되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정보를 교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에서는 △국내 양봉산업현황 및 기술개발 방안(이광길 과장) △우수여왕벌 양성 및 관리기술(이만영 실장) △꿀벌바이러스병 및 질병의 종류와 진단(최용수 박사) △봉독 생산과 이용(한상미 박사) 등의 주제가 발표됐다. **양봉**



# 벌꿀 수거 검사 실시

- 아카시아 벌꿀 등 총 15종 수거 검사
- 표기 부적합 5건, 규격 부적합 1건 적발
- 협회, 꿀시장 정화사업에 앞장 설 것

한국양봉협회가 소비시장의 벌꿀 정화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협회는 추석을 맞아 9월 28일 서울시내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판매중인 벌꿀 총 15종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수거한 제품들에 대해서 협회는 규격기준 및 표시기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탄소동위원소 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품목은 아카시아꿀 7종, 잡화꿀 4종, 밤꿀 1종, 토종꿀(도자기, 벌집) 2종, 사양벌꿀 1종이며, 검사결과 표기부적합 5건, 규격기준 부적합 1건(토종꿀) 등이 적발됐다.

특히, 탄소동위원소 검사결과 사양벌꿀이지만 표기하지 않은 제품은 소분일이 2009년 8월1일 이전의 것으로 판명됐다.

협회는 우선 사양벌꿀 유통 합법화에 따라 각 업체가 기준을 명확히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번 검사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통보해 시정 조치 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아울러 향후 재래시장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수거검사를 확대해 꿀 시장 정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양봉**

